

KIWOOM Digital Asset Issu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디지털자산리서치팀
| 디지털자산/원자재 심수빈 sb.shim@kiwoom.com
| RA 김현정 hyun.k@kiwoom.com

[#STO] 번외) 조각투자 살펴보기: 명품

• 새로운 재테크 대상, 명품

- 명품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에 따라 재테크 상품으로서 주목. 이에 명품 리셀이나 조각투자 등 관련 시장 확대 및 투자자들의 관심 상승

• 국내 명품 조각투자와 관련 플랫폼은?

- 활발하게 서비스를 운영중인 국내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은 피스(PIECE), 트레저러(Treasurer), 지브라(ZEBRA) 3곳으로 감정 절차 운영과 위조품에 대한 보상제도는 3곳의 플랫폼 모두 동일. 다만, 투자 상품 및 대표 서비스에서 특징이 있음

-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면서, 증권성 판단 이슈가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의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새로운 재테크 대상, 명품

지난주 자료에서는 새로운 투자 상품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콘텐츠 조각투자와 관련 플랫폼 '펀더풀(Funderful)'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해당 플랫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인가받아, 투자 정보 게재, 투자자 예치금 및 투자금 별도 관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2가지 종류의 채무 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관련 아이템 판매 마켓 운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지난주 자료에 이어 색다른 투자 상품 중 하나인 명품 조각투자와 관련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2021년 국내 3사의 백화점 해외브랜드 매출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해외여행 제한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 심리로 고가 제품 구매 욕구 상승과 명품 브랜드들의 가격 인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품 브랜드들은 인건비·운송비·원자재 가격 상승 및 환율변동반영 등을 이유로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일례로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경우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2차례 가격 인상을 진행하였으며 대표 가방은 2년만에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속적인 가격인상에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자 명품을 구매하여 옷돈을 붙여 되파는 형태의 명품 리셀이 신종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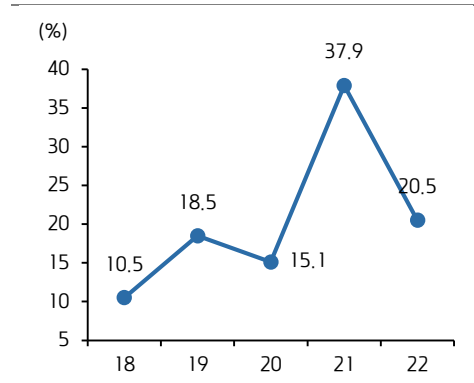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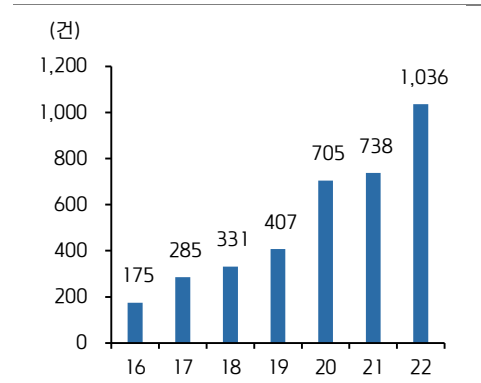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3사 백화점 해외유명브랜드 매출 증감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명품 내 투자 및 연관어 검색 횟수 추이



자료: 네이버 데이터 랩,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명품 조각투자 및 관련 플랫폼은?

명품 리셀 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종의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고가의 제품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제품 매각 시 공동 구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해주는 형태의 명품 조각투자가 주목 받고 있다.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들은 제품 선별 및 투자자 모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피스, 트레저러, 지브라를 들 수 있다. 관련하여 세 플랫폼의 서비스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플랫폼 별 특징을 이야기 하기에 앞서,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플랫폼에서 직접 현물을 선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후 플랫폼은 해당 현물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할 투자자를 모집하게 되는데, 이때 투자자는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조각을 구매한다. 일정 시간이 지나 해당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매각하고 플랫폼은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의 투자 금액에 따라 배분한다.

바이셀스탠다드 - 피스(PIECE)

‘피스’는 바이셀스탠다드에서 운영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3월에 출시되었다. 피스의 투자 상품은 고가의 시계와 아트 작품이다. 서비스 출시 후 첫 조각투자 상품은 ‘롤렉스 집합1호’로 11개의 롤렉스 시계를 하나의 포트폴리오에 묶어서 진행하였다. 이처럼 피스는 동일 품목의 상품을 여러 개로 묶어 조각투자를 진행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해양선박 조각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는 등 투자상품 확대를 진행 중이다.

시계 등 고가의 제품이 투자상품인 피스는 위조품 선별을 위해 내부감정과 외부감정을 모두 진행한다. 만일 이러한 감정 절차를 모두 진행하였음에도 위조품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각 소유 원금의 110%를 플랫폼에서 배상하는 보상제도를 운영한다.

피스는 투자자 모집 시 운용기간을 사전에 고지한다. 즉, 조각 소유자들의 투표로 매각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피스가 정한 운용기간에 따라 매각되는 것이다. 물론,

*** 바이백 제도 운영방법**

시행 전 조각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과반 이상 찬성 시 제도 시행, 과반 이상 반대 시 회수기간에 대한 의견 재청취 기간을 거치며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재매각 진행

운용기간 도래 전에 수익률을 달성한 경우에는 바로 매각이 진행된다. 피스는 이러한 매각 방법으로 인한 투자자 원금 손실 방지를 위하여 ‘바이백’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운영한다. 바이백 제도는 운용기간(명품-6개월/아트작품-1년)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투자상품의 원금으로 플랫폼에서 재구매하여 조각 소유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이 외에도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포인트와 예상 시세 정보 등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트레저러(Treasurer)

시계, 와인, 가방, NFT 등을 조각투자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트레저러’는 2021년 7월에 서비스 운영을 시작하였다. 타 플랫폼과 달리 기존 명품 조각투자 대상인 가방, 시계를 넘어 와인 등의 고급주류와 NFT, 금을 투자상품으로 하고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있다. 이렇게 투자 상품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3곳의 플랫폼 중 현재까지 진행한 조각투자 상품의 수가 147개로 가장 많다.

*** 트레저러 조각마켓**

이용자 간 조각을 거래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 발행플랫폼에서 조각을 구매하지 못한 자는 조각을 구매할 수 있고, 이미 조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추가로 구매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판매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마켓

트레저러 역시 피스와 동일하게 위조품 판정 시 투자자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트레저러는 타 플랫폼과 달리 회원 간 자유롭게 조각을 구입하고 판매가 가능한 조각 마켓을 운영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조각 마켓 운영으로 트레저러는 ‘시장 괴리율 안내’라는 이색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 괴리율 안내란, 투자자가 조각 마켓 거래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마켓 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 조각이 실제 시장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로 조각 마켓 운영과 함께 트레저러의 대표 서비스이다.

이 외에도 조각 소유주 대상 오프라인 쇼룸(VAULT ZERO)을 통해 투자자가 실물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SK 모바일 앱(syrup)에서 OK캐쉬백으로 조각 구매 가능한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주식회사 쿠돈 - 지브라(ZEBRA)

‘지브라’는 후발주자로 2023년 1월에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명품 가방 리세일 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쿠돈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주된 투자 상품이 중고 명품 가방과 관련 약세사리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두 곳 플랫폼의 투자 상품인 시계, 미술작품 등에 비하여 투자 원금이 낮은 중고 가방이 주요 투자상품인 만큼, 매각 전 보유기간이 평균 44일로 283일인 피스와 119일인 트레저러 대비 짧아 단기투자에 유리한 특징이 있다.

지브라 역시 위조품 판정 시 투자 원금을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상품별 별 중고등급을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중고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브라의 중고등급 5단계

- 최상: 새 상품 또는 개봉된 새 상품
- 상: 사용 횟수 적음
- 중: 자연스러운 사용감
- 하: 스크래치, 때 등 사용한 흔적이 다수 있음
- 최하: 변색, 구멍 등 사용감 많음

명품 조각투자 플랫폼 별 특징 비교표

	피스(PIECE)	트레저러(Treasurer)	지브라(ZEBRA)
서비스 출시일	2021년 3월	2021년 7월	2023년 1월
투자 상품	시계, 아트 작품	와인, 시계, 가방, NFT	가방, 키링
투자자 보호 제도	투자금 보상 제도 바이백 제도 도난 보험 가입	투자금 보상 제도 도난 보험 가입	투자금 보상 제도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최대: 2천만원(모집금액이 2억 이상인 경우 금액 상이)	최소: 1,000원 최대: 상품 전체 모집 조각의 30% 수량과 10,000조각 중 더 높은 수량으로 한정	최소: 10,000원 최대: 제품 별 상이(20만원 ~ 50만원 사이)
거래 제품 수	22개	146개	62개
매각 방식	명품은 6개월, 아트는 12개월	매각 투표 진행	제품 판매처 확정 시 매각
매각 완료 제품 수	8개	62개	38개
평균 상환일	283일	119일	44일
평균 수익률	15.8%	14.6%	6.3%
최소/최대 수익률	최소: 0% / 최대: 32%	최소: 2.5% / 최대: 42.1%	최소: 5.1 / 최대: 11.1%

자료: 각 플랫폼 홈페이지,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지브라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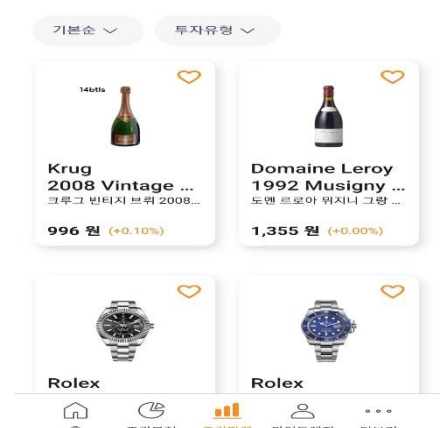
자료: 지브라

트레저러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 예시



자료: 트레저러

트레저러 어플리케이션 조각마켓 화면 예시



자료: 트레저러

트레저러 어플리케이션 조각마켓 화면 예시2



자료: 트레저러

한편, 2022년 4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2022년 1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미술품·한우 소유권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미술품, 한우 조각 투자관련 플랫폼들은 금융위가 부과한 사업 재편 의무를 수행 중이다. 당시 서비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던 지브라를 제외하고 피스와 트레저러 두 플랫폼도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피스는 제공하는 투자 상품에 대해 증권성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1월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상품 투자 상품 오픈은 중단된 상태이며, 기존 투자 상품 보관 및 매각 관련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다. 관련하여 피스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증권신고서 체계를 갖춰 나가는데 집중하고 있음을 밝혔다.

반면, 트레저러는 2022년 4월 제공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증권이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인 만큼 상·민법이 적용된다고 발표하였다. 그 이유로 동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만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상품 매각 또한 전적으로 소유자들의 투표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트레저러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규 투자상품 오픈 및 개인간 조각 거래가 가능한 마켓 서비스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공개와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 판단 이후 조각 투자 상품에 대한 증권성 여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명품 관련 조각투자에 대해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이는 사업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추후 관련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계약증권 판단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